

## 가정방문일지

방문일자		교통수단 방문시간	대중교통 15:30-17:30	정신보건 간호수련생	
대상자 이름	김○○	성별	여성	나이	20세
환자분류체	major depressive disorder				
방문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물복용 이행도 및 현재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.</li> <li>- 대상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.</li> <li>-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정하여 연계한다.</li> </ul>				
내용	<p>▶ Objective</p> <p>대상자와 대상자의 집의 위생 상태는 청결하였으며 동거자 외출로 혼자 있었음.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이전에 비해 살이 조금 빠지고 헐썩해진 모습임.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였고 주로 동거자와 함께 집에서 먹으며 3일 전 검정고시 시험이 끝나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고 내일은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놀 계획이라고 하였음. 불규칙적인 수면양상을 보였음. 다음달부터 미술학원에 다닐 예정임. 약물 복용을 자주 잊어버려 남은 약이 많은 상태임.</p> <p>▶ Subjective</p> <p>“며칠 전 컴퓨터 모니터 교체 건으로 아버지와 의견충돌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거의 한 2주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식욕도 없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. 물도 안마시고 싶고 잠도 안자고.... 억지로 자도 3시간이면 깬어요. 그냥 다 짜증이 나서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시면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고양이들도 다 내보냈어요. 아빠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너무 짜증이 나서 칼을 들고 팔을 이렇게 이렇게 팍팍 찌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잠깐씩 자는 동안 너무 많은 꿈을 꾼서 그 때의 그 기억이 현실이 있는지 꿈이었는지 아직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. 제가 일기를 적었었는데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일기는 없었어요.”</p> <p>“예전에는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무조건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는 맺지 않기로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깐 제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”</p>				
평가/ 추후계획	<p>-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기력증이 발생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면 패턴 역시 불안정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간 활동 기관 연계가 필요하다.</p> <p>-약물 복용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으로 보아 약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</p> <p>오랜만에 대상자를 방문해서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반갑게 맞이해줘서 너무 고맙았다.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에 검정고시도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 여동생이 합격한 것처럼 너무 기뻐다. 이미 대상자와 라포가 형성된 상태라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시행할 때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.</p> <p>대상자와 이야기를 할수록 나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정신간호사는 정확한 약물지식 및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.</p>				